



화합과 협력으로 도약의 한해가 되기를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조 규 상

반성하여야 할 일

지난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이었고 우리 협회도 고통과 시련의 시기였습니다.

과거 30년간 우리 협회는 대학의 산업보건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므로서 오늘날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훌륭한 기관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참으로 미약한 속에서 출발하여 어려웠던 세월을 거치면서 건물을 마련하고 기자재를 구입하여 직원을 훈련시켜 오늘날 산업보건사업의 모체로 성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힘을 합쳐 이룩한 것으로서 이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동안 우리는 노사라는 말도 없이 일하여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협회가 공익기관이므로 생산업체와 같이 수익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지않고 모두가 봉급을 받는 사람으로서 너도나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여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노조는 산업장의 노조와는 달리 직원들의 좋은 의견들을 반영하여 건설적으로 우리기관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단체협상과정에서 파업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가져왔고 파업기간 중 업무는 방해되고 협회의 명예는 실추되는 등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원래 협상이란 서로의 다른 의견을 절충하여 보다 발전된 의견을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기느냐, 지느냐라든가, 내 권익이냐, 네 권익이냐라는 사고방식으로는 좋은 협상이 될 수 없습니다. 더우기 투쟁이라는 말은 삼가하여야 합니다. 한 가족끼리 누구와 투쟁한다는 말입니까.

협의하여 올해에 안된일은 내년에 가서 또 서로 좋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색해 나가는 것입니다.

협회는 과거에 비하여 많은 성장을 하였다고 보나, 아직도 차관을 갚아야 할 빚도 있고, 정부승인을 받아야 할 각종사업의 수가 낮아 운영하는데 만족할만큼 직원의 보수를 책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점차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살림살이는 모두 퍼놓고 서로 알고 이해속에서 운영되어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는 비리나 부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날 그날 일하여 살아나가야 하는 살림이기에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인 요구는 통할 수가 없으며 더우기 파업이란 곧 우리 살림의 마비를 가져오게 됩니다.

열손가락 깨물어서 안아픈 손가락 없거니와 한 손가락이 아프면 열손가락에 지장을 가져옵니다. 보건의료단체에서는 파업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사명을 띠고 일하고 있으며 이 사명을 떠나서는 협회나 우리 존재의의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해 잘못된 일들은 서로 잊고 용서하며 미움과 불신을 버리고 이해와 신뢰하는 새마음으로 일하여 나갑시다.

새롭게 추진해야 할 일

산업보건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정밀한 측정기구와 훈련된 과학자에 의하여 측정하더라도 시시각각 변화되는 혼합된 유해물질이나 인자들이 산재해 있는 작업장의 환경이나 여기서 일하는 작업자들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경솔히 환경의 양비나 건강의 가부를 속단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 일에는 많은 연구경험이 필요하며 여러분야의 공동노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업무는 타성에 흐르거나 형식적인 연중행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근로자들에게서 일어났거나, 일어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사전에 발견하여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업보건센터는 소장을 중심으로 기술부는 신뢰받을 수 있는 정확한 검사를 하며, 관리부는 기술부가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여야 합니다.

지역센터와 지부는 소장과 지부장 책임하에 그 지역을 책임지고 업무를 수행해 나가며 본부는 각 지역의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날 산업보건의 안고 있는 중요과제는

1. 소외된 근로자들을 위한 보건사업의 실질적인 접근방법의 촉진
2. 첨단산업, 특히 새로운 화학물질로 인하여 올 수 있는 건강장해 대책
3. 근로자들이 보다 건강하기 위한 건강증진운동의 전개 등 세가지 입니다.

본 협회는

1. 정부시책에 호응하여 영세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보건관리사업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이들 사업장들은 작업환경조건이 열악할 뿐 아니라 산업보건의나 보건관리자도 없는 곳이므로 집단보건관리 방식에 의하여 보건관리대행부서가 주관이 되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접근방법을 개발하여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 과거에 비하여 산업의 종류와 양상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고 따라서 작업형태의 변화와 아울러 취급하는 화학물질도 증가되어 그 실태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기에는 고도의 정보수집과 전문지식이 소요됩니다. 본 협회는 산업보건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각종 유해물질과 인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정도관리 연구에 주력하므로써 전문지식의 함양과 신뢰받을 수 있는 기술향상에 노력할 것입니다.
3. 오늘날 산업보건의 세계적 동향은 산업보건을 계획하고 실천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근로자가 작업에 유해한 것을 식별하여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근로자들도 자기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져 보다 건강하기 위한 운동들이 사업장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정신적 모든 면을 포함한 것으로서 포괄적 건강을 의미하며 따라서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생활습관 전반에 관한 개선운동을 뜻합니다.

과거 산업보건은 법에 의하여 질병, 특히 업무상 질병의 예방에 주력하였으나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새롭게 전개해 나가야 할 일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국제화·세계화 시대속에 살고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멀리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새해를 출발합시다. ♣

새해인사 드립니다.

특수건강진단기술협의회
회 장 윤 임 중

지난해에는 살을 여미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실로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참고 오늘에 이른 회원가족 여러분께 깊숙히 허리 굽혀 감사드립니다.

회원가족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배우며 그 뜻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지난날을 돌아보고 잘된것은 계속 발전시키며 바람직 하지 못한 것은 보다 합리적이고 훌륭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이나 집단이나 또는 나라나 인류역사의 참뜻이 여기에 있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옳고 그름이 우리의 경험이었고 그런 과거가 이어져 오늘의 우리가 있음이라면 지난날의 아픔이 앞날의 발전에 큰힘이 되리라는 것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회원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란 어떠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간에는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가족관계라 할 수 있을까요.

부모는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할때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서로 이해하는 마음이 없고서는 아픔과 기쁨을 나누는 너그러움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가족을 이루는 하나 하나가 내앞만을 가려내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회원가족 여러분이 있기때문에 협회가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협회가 있기에 회원가족이라 일컬을 수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회원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 하나는 결함이 있기에 장점도 있고 자랑할만한 점이 있기에 부족함도 눈에 띄게 됩니다. 좋은 점을 입에 담고 키워주며, 아픈곳을 어루만져주는 마음이야 말로 우리의 앞날을 밝게 비춰주는 빛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영원할 역사의 흐름속에서 우리는 다시 새해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아픔이 아픔만으로 끝나지 말고 더욱 보람스럽고 앞서가는 내일을 이룩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기를 몇번이고 기원합니다.

부디 새해에는 우리 모두의 기대와 소망을 이루며 그럽고 기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여 우리의 노력이 근로자 여러분에게 진실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과 함께 염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분들께 끝없는 기쁨과 발전이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

고통을 분담하는 마음으로 새해살림을

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
회장 정봉석

1994년 갑술년을 보내면서 느끼는 감상은 금년 여름에는 너무나 더워 짜증스러웠고, 정치행정면에서 사회구조면에서 여러가지 병리현상의 증첩으로 우리 국민은 희망적인 면보다 곱은 일, 불안한 일들이 너무 많았던 한해였다는 것입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와 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도 보건단체로서는 유례없는 노동쟁의가 발생하는 시련을 겪었으며, 이는 봉사정신 결여, 전통유교사상 퇴조, 단체의 일체감 조성과 협동정신 부족, 집단이기주의사고 등 복합된 요인으로 매우 불명예스러운 표본이기도 하여 씁쓸함을 금할 수 없는 심경입니다.

특히 일기협에 있어서도 본 사업은 약 30여년간 계속되어 왔으며, 국민소득에 비례하여 국민복지문제도 더 확충배가하여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주들의 부담이 문제로 야기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60년대초부터 산업화정책을 선성장 후분배라는 경제기조하에서 시작한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기조속에서 국민복지의 기본사업마저도 외면당한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올해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근로자의 건강진단사업이 더욱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에 대한 몇가지 의견을 부연하고자 합니다.

- 건강진단사업은 가급적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시작하여 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가 참여하여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경과를 관찰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 사업장 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 제도가 가일층 발전,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일반건강진단기관의 다년간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십분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향후 성인병관리 등에 필수적인 검사항목 등이 충분히 검토되어 시행되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기관들에 대한 정도관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해 올해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심기일전하여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복지를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정신과 공동체를 위해서는 고통을 분담한다는 마음으로 새해 살림을 시작할 것을 다같이 다짐하면서 신년사에 대합니다. ♣

